

본당 소식

2025년 1월 교황님 기도지향 : 교육을 받을 권리

이주민과 난민과 전쟁 피해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언제나 존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및 친교 나눔 이후 뒷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 구정 설 합동위령미사 안내

- 민족의 명절인 구정 설(1월 29일)을 맞아 오는 26일 주일 미사는 설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영성체 후 연도 및 분향 예절 있습니다.
- 미사 후 합동 세배 및 음식 나눔이 있습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초 축복 예식

-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한 해동안 가정에서 쓸 초를 축복합니다.
- 초 축복 예식: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주일)
- 가정용 초: 10유로(제대용 사이즈의 1/2)
- 구역별 신청 마감 및 입금 : 1/26(주일)

♣ 모임/회의

- 성모회: 오늘(19일) 미사 후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안희관 요셉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26,80€ • 교무금 00,00€

전례 성가

입당: 16 (온세상아 주님을)

봉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164 (떡과 술의 형상에),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파견: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전례 봉사

이번 주일(1월 19일)	다음 주일(1월 26일)
1독서: 안희관 요셉	1독서: 김성진 다니엘
2독서: 이경진 카타리나	2독서: 이소정 다니엘라
복 사: 안태오 마태오, 변가인 헬레나	복 사: 김사빈 엠마,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1월 19일 (녹) 연중 제2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주님께 드러라, 모든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
-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

제1독서 (이사야서 62,1-5)

- 1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햇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 2 그러면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 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 3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되리라.

4 다시는 네가 ‘소박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네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5 정녕 총각이 처녀와 혼인하듯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혼인하고 신랑이 신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듯 너의 하느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2,4-11)

형제 여러분, 4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5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6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7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8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9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10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11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복음 (요한 2,1-11)

그때에 1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7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빛이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은총으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며,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인 일치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기도드리오니, 여러 교파와 전통으로 나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힘입어, 서로 대화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의 주님, 여러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피 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 말씀과 함께 평온을 되찾고 치유의 기회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 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 ## 영성체 후 기도
-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